

# 아름다운 나의 이름

작은 캐릭터나 그림과 함께 나의 이름을 예쁘게 꾸미기

# 시각디자인

## ■ 시각디자인이란,

눈에 보여지는 기호나 형태. 색채 등에 의하여 내용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입니다.

주로 인쇄 영상매체를 이용한 그래픽디자인, 일러스트레이션, 영상디자인, 웹디자인, 등이 시각디자인의 영역에 포함되지요.

## 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

자신의 이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 
아름답고 인상적으로 제작하여  
새로운 사람들에게  
자신의 이름을 좋은 인상으로 기억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.

일종의 시각디자인거죠.

# 대표적인 문자체

이름을 쓰려면 문자를 사용해야겠지요?

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자체로는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어요.

## ■ 명조체

붓글씨체를 활자체로 정리하여 만들어진 글자체로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.

명조체는 그 느낌이 눈에 피로감을 덜 주고 우아해서 대부분의 책에서 본문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## ■ 고딕체

글자의 느낌이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모양이 또렷하고 빠르게 알아 볼 수 있어서 포스터나 도로교통 표지판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# 문자체 디자인의 조건

요즘 폰트(Font) 라고들 부르는 문자체는 몇 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 한답니다.

## ■ 판독성

어떤 글자인지 구분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.

‘가’ 라고 쓴 건지 ‘기’ 라고 쓴 건지 구분되어 읽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

## ■ 합목적성

문자가 사용되는 목적에 맞는 글자체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, 공포스러운 내용을 알리려고 할 때는 피를 흘리고 있는 글자를 사용한다거나, 엄격한 내용은 고딕체나 궁서체를 사용하는 것 처럼요.

## ■ 규칙성

문자를 디자인할때 미리 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서 디자인해야 일관성 있는 문자체가 완성이 된답니다.

'캘리그래피'의 뜻은 아래에 보듯이 아름다운 글쓰기 인데  
요즘 캘리그래피로도 보기 좋은 문자를 쓰곤 하지요.

## ■ 아름다운 (calli) + 글쓰기 (graphy)

손으로 쓴 개성 있는 글씨를 말합니다.

사용되는 필기구의 종류와  
표현하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따른  
다양한 선의 강약과 굵기를 활용해  
글자에 감정과 이미지를 삽입함으로써  
전달하고자 하는 문자 본래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지요.

캘리그래피



이미화(1977~/한글) 화선지에 먹/2015년  
미진사 교과서 83쪽

## ■ 떠올려 보기

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이름스티커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었지요? 중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한답니다. 그런 스티커에는 이름 옆에 작은 그림이나 사진들이 있곤 했지요?

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.



자료출처 : 이야기공작소



자료출처 : 동그라미



자료출처 : 기프팅유

## ◆ 생각해 보기

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, 혹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을 거 같나요?

그림이나 사진같은 이미지를 곁들일 때 사람들이 그 그림을 연상하여 떠올릴 수도 있으니

1. 좋은 인상을 주는 그림이나
2.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미래 그려보거나
3. 자신이 늘 너무도 좋아해서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나
4. 남들에게 남기고 싶은 인상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고 제작하는 것이 좋아요.

# 작품 제작하기

- ▶ A4용지의 1/4 크기로 정도로 제작하면 됩니다.
- ▶ 예쁜 캐릭터나 그림 혹은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여 이름과 함께 예쁘고 단정하게 꾸밉니다.
- ▶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지만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재료면 되겠지요?

좋은 결과를 원한다면

- ▶ 글자 모양을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.  
또한 글자가 그림보다 약하지 않도록 강조해 주면 좋습니다.
- ▶ 글자와 그림 혹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울려야 합니다
- ▶ 실제 수업에서 이 작업은 모두 3번의 수업을 통해 완성됩니다.
- ▶ 색연필로만 끝내는 것보단, 좀 더 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도구를 추천하고 싶어요.



# 작품 마무리 하기

- 마무리 할 때는 선이 삐죽거리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잘 다듬어 줍니다.  
좀 두꺼워지게 되어도 괜찮습니다.
- 색을 칠할 때 원하는 색이 제대로 발색 되도록 하고,  
원하는 곳 혹은 정해진 곳 외에 다른 곳에 묻거나  
빠져 나가지 않도록 정성 들여 칠해 줍니다.
- 종이를 자를 때에는 미리 모양이나 위치를 정한 다음 성 들여 잘라 줍니다.  
완성된 작품이 꼭 동그라미나 네모일 필요도 없습니다.

즉, 글자와 이미지의 모양대로 일정한 간격을 남기고  
모양을 따라서 오려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